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26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태섭 ☎440-4351 • 담당자 우성남 ☎440-43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에 470가구 쓸 수 있는 태양광 설치

- 인천 남동경기장 공익형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완료해 본격 전력 생산 -  
 - 온실가스 연간 560톤 감축 ... 여름에는 그늘막 효과까지 -

인천광역시(유정복시장)는 4월 26일 인천 남동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시, 시의회, 시 체육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경기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 시민참여형 태양광 개발·운영 상생업무 협약」 체결한 후, 인천시에서는 공유재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발전공기업과 시민이 함께 설치·운영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약 18억 원(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돼, 태양광 발전설비 965.5kW 규모로 매년 약 1.3GWh(4인 가구 기준 약 470여 가구 사용)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CO<sub>2</sub>) 연간 560톤 감축으로 8만5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무더위에 주차장에는 그늘막이 돼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 공유재산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위해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준공식 관련 사진은 행사(15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남동경기장 전경